

# 미와 심

2025 통권 Vol.137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엄정호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새로움에 대한 기쁨과 설렘으로 충만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복지관은 2024년 한 해 동안 복지관 재수탁을 시작으로, 중장기 발전방안을 재정립하고 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발로 뛰며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복지관 차원에서는 개인별 지원과 사람중심실천에 기반한 서비스 가치체계 정립, 지역사회 중심, 소외지역을 위한 사업 확대라는 큰 흐름에 집중하였고, 직원들은 이를 잘 실천하고자 배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사람중심실천과 사례관리 체계화를 더욱 튼튼히 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서 장애인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위해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장애인복지 실천 현장과 정책들, 복지관 신축 등 우리 앞에 놓여질 여러 가지 변화의 상황들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장애인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누구나 자신이 가치있게 여기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보통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늘 복지관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새해에도 복지관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함께 해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외와샘

2025년 vol.137호

복/지/관/미/선

모든 사람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실현

- 02 새해인사
- 03 목차
- 04 2025년 복지관 중점 사업방향
- 06 2024년 다시보기
- 08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석재근님 이야기
- 10 평창분관 자원활동 어벤져스
- 12 동행, 스승과 제자로 만난 특별한 관계
- 14 2024 장애인복지실천 이야기마당
- 16 변화를 위한 함께 걸음
- 18 2024년 후원금 결산
- 19 2024년 함께 해주신 후원자&자원활동가

\* 외와샘의 글, 사진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사용하였습니다.



[표지이야기]

표지 그림은 징검다리 사업을 통해 꿈을 찾고, 실천하고 계신 김혜인님의 작품입니다.

[외와샘] 2025년 통권 137호

발행처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발행인 엄정호

발행월 2025. 1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우로27

전 화 033)255-2491

팩 스 033)255-2494

이메일 kwrc01@rehab.or.kr

홈페이지 www.rehab.or.kr

편 집 편집위원회

김영주, 김유림, 박병현, 신지영, 이재연,

이재길, 장성영, 조연화, 차정연, 최진희

디자인&인쇄 (주)아이비스퀘어

인스타그램 계정

@kwrehab228

복지관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 하시면 다양한 정보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 2025년 복지관 중점 사업방향



## 전략목표 1. PCP기반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 지원

### 개인별 지원 및 사례관리 사업

- 사람중심실천(PCP) 실천 위원회 구성 및 학습
- 사람중심 및 지역사회기반 징검다리 사업의 고도화 방안 마련 및 실행
- PCP 도구 활용 종합사정 방법 모색 등 균형잡힌 사정, 사례관리 매뉴얼 개정

### 중재와 컨설팅 사업

- 전환기 및 성인 장애인 대상 사람중심실천 체계 강화
- 생애주기지원사업의 도내 확대 실행
- 아동, 청소년 대상 긍정행동지원의 안정적 운영
- 미취학 아동 대상의 긍정행동지원 계획 수립과 운영

### 가족지원 사업

- PCT를 활용한 부모 자조모임 운영 및 부모 심리 지원
- 장애인 가정 주도 문화누림의 확대 운영

## 전략목표 2.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참여지원

### 여가문화지원 사업

- 해남미래대학의 운영체계 점검 및 개선
- 해남미래대학 결과를 활용한 굿즈 제작과 활용

### 직업지원 사업

-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직무 연계 활성화

## 전략목표 3. 지역사회기반 장애인복지서비스 소외지역 사업확대

### 지역사회중심지원 사업

- 거주시설 퇴소장애인을 위한 자립지원 체계 마련

## 전략목표 4. 장애인복지시설 경영지원

### 장애인복지시설 경영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

- 긍정행동지원 등 사업영역 및 운영 영역별 경영컨설팅 및 자문
-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교육 품질 향상

## 전략목표 5.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조사연구사업 확대

### 조사연구 사업

- 도내 장애인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보고서 발간
- 토크콘서트 형태의 성과발표회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전략목표 6. 지역사회인식개선 및 통합환경 마련

### 장애인권익옹호 사업

- 읽기 쉬운 자료 제작 사업 확대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정책 등 공공정보에 대한 쉬운정보 변환 제작과 배포

## 전략목표 7. 분야별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확대

###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개발 사업

- 긍정행동지원 실천가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고령장애인 지원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성
- 도 단위 장애인복지시설 네트워크 구축

## 전략목표 8. 모범형 Followership을 통한 생동감 있는 조직만들기

### 기획홍보 및 운영지원 사업

- 사람중심 조직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과 실행
- 배움과 개선,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평가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는, 202.4FM 강장복 라디오 “사랑의 불뿔을 높여요.”

# 강장복의 별이 빛나는 밤에



저는 올해 서로이웃사업에 참여한, 동해에 살고 있는 청각장애인입니다.

처음 비장애인들과 모임을 하는 게 어떠한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모임을 진행할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임에 참여하며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니 좋은 이웃이 있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에게도 우리 지역에 다양한 이웃이 생겼다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와 시장, 농아인협회 말고는 갈 곳이 없었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물어볼 곳 없었는데 모임 안에서 은행에 다니는 이웃을 만나 은행 업무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고 거리를 거닐 때 아는 사람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경험도 합니다. 서로이웃 모임을 하며 함께 일상을 나누고 같이 다양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일상에서도 우연히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이웃이 생겼다는 게 늘 똑같았던 나의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 같아 행복합니다. 이제 농아인협회 직원이 아니어도 함께 이야기 나누고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이웃이 생겼다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이런 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고맙습니다.

- 동해지역 서로이웃 참가자

문화누림에 3대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의지 못할 기억은 여행이라는 추억과 마주하며 그제서야 자세한 안부를 묻곤 하던, 함께 나누었던 시간을 되새겨봅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부모님을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고, 바쁘게 지나다 보니 부모님과 시간을 마주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3대와 함께한 여행 속에서, 부모님의 어린아이와 같은 웃음과 동심의 표정 속에서 오래도록 기다려준 부모님의 마음을 들여다 보게 됩니다.



혹여 나중에 부모님과 긴 이별여행을 갖게 될 때 이번 여행의 추억들을 꺼내어 부모님이 걸어왔던 모든 발자국 안에 나와 자녀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최고의 선물을 선사해주신 복지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방은진(문화누림 참가자)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강정숙입니다. 올해 즐겁고 행복한 일이 정말 많았는데, 이렇게 사연을 남길 수가 있어서 기쁩니다.

해남대학에서 댄스를 배우며 건강도 챙길 수 있었고, 사진 수업을 통해서 일상을 기록하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해남대학 회장단 총회장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이 되었던 날은 제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해남대학 동료들과 엠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도 잊을 수 없습니다. 2024년도 복지관 덕분에 행복한 기억으로 꼭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강정숙(해남대학교대학 이용자)



시각장애인용 보이스아이 심물입니다.



저는 올해 처음으로 복지관 개별 물리치료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은 아픈 몸만 치료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도 복지관은 마음의 치유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웃는 얼굴이긴 하지만 도 복지관에 오면 유난히 더 많이 웃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도 복지관을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이 자주 듭니다.

이번 기회에 개인적인 일이지만 올해 모두와 공유하고 싶은 경사가 있어 함께 적어봅니다.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곤봉던지기 대표선수로서 올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더불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힘들게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무척 뿌듯했습니다. 내년에도 도 복지관에서 열심히 치료받고 치료사 선생님들께 긍정의 기운을 받아서 운동선수로서도 더 큰 활약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이상준(개별물리치료이용자)

글, 자료정리 생애주기지원팀 조연화 작업치료사

#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석재근님 이야기

우리복지관 이레의집에서 생활하며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석재근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당사자 인터뷰(석재근)

## Q. 공동생활가정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석재근입니다.  
김은희 선생님, 공동생활가정 친구, 형들과 크리스마스 지나고 주말에 롯데월드를 다녀온 거예요. 기차 타는 것을 좋아해서 기차 타고 이동하는 것도 좋았고 롯데월드는 처음이라 재미있었어요. 퍼레이드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따뜻한 봄에 혼자 다시 한번 가 보고 싶어요. 부산 여행은 여름이라 너무 힘들어서 기억에 남아요.

## Q. 어떤 자립 생활을 꿈 꾸시나요?

지금처럼 매일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는 생활이요. 깨끗하게 지내고 싶어요. 깨끗해야 건강해요. 제 방이 따로 있고, 거실, 주방이 분리되어 있고 와이파이 중요해요. 세탁기, TV 옵션 있는 곳으로 가래요. 근데 전세는 옵션이 없어요. 지금처럼 후평동에 살고 싶어요. 버스가 많아서 교통이 편리한 곳이요. 어플을 보고 버스 탈 수 있어요.

## Q. 직장생활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직장은 어떤 의미인가요?

2023년 11월 지금 일하는 곳이 오픈할 때부터 근무했어요. 하루 3시간씩 근무하고, 일주일에 한 번 쉬어요. 직장은 좋은 의미예요. 취업하고 돈도 버니까요. 교통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출근하는 게 좋아요. 원래 청소하는 거 좋아하는데 직장에서도 청소나 설거지를 하니 업무도 만족스러워요.

## Q. 공동생활가정 송년 행사에 초대받은 직장 동료는 어떤 사람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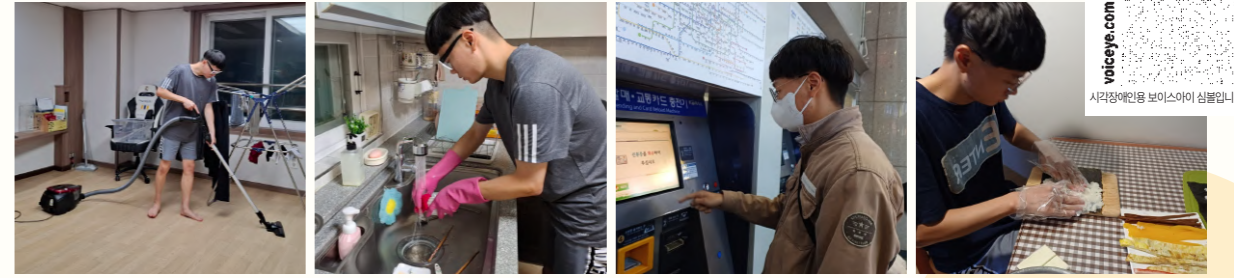
효은님이요. 일할 때 제일 많이 보는 데 편하고 좋아요. 송년 행사 때 초대해서 같이 밥 먹고 커피도 마시고 좋았어요.

## Q. 복지관 직원들에 대한 한마디를 한다면?

김은희 선생님, 이선근 팀장님, 홍예빈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에요. 자립을 잘 하도록 도와주시니까요.

## Q. 2025년 새해 다짐은?

자립해보고 싶어요. 공동생활가정 입주인들과 정들었지만, 그래도 혼자 살아보고 싶어요.



직장 동료 인터뷰(어효은)

## Q. 직장에서 보는 석재근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안녕하세요. 재근님 동료 어효은입니다.  
재근님과 일한 지 벌써 10개월이 되었네요. 처음 함께 일할 때는 말수가 적지만 묵묵하게 맡은 일을 잘하는 동료였어요. 어려운 일, 힘든 일도 한번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나면 누구보다 신속하게 해내곤 했어요. 시간이 좀 지나자, 대화도 나누게 되었고 일할 때 힘든 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야기 나누기도 하면서 업무에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또 간식을 사와서 다른 층에 근무하는 바리스타분들과 저, 팀장님에게 간식을 나눠주기도 해서 감사했어요.

## Q. 공동생활가정 송년 행사에 초대받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공동생활가정 송년 행사에 직장동료를 초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저를 송년행사에 초대할 수 있는 동료로 생각해 주어서 고마웠어요. 재근님과 함께 일하는 미령님도 송년 행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초대 해주셔서 더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모두 편하게 인사해 주셨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어요.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 Q. 자립을 앞두고 있는 석재근님께 응원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이제 몇 개월 뒤면 자립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어요. 워낙 일을 잘하고 필요한 걸 잘 찾아서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자립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직장생활은 지금처럼 서로 다른 성격인 동료가 있어도 함께 협력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해나가길 바라요. 재근님의 동료인 미령님이 먼저 자립 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서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립 생활을 하면서 모르는 점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주변 선생님, 동료들에게 물어보고 이야기 나누면서 배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연습을 하고 또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 가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겁게 해나가길 희망해요. 재근님의 자립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자립 선배로서 한마디(황미령)

“자립을 하면 조금은 익숙하지 않을 거야.  
직장에서 이동하는 거리 생각해서 출퇴근 잘하고. 마트, 병원, 버스 정류장 가까이 살아라.  
1층은 아니다. 2층이나 3층을 가라.”

인터뷰, 글/사진 사람중심지원프로젝트팀 장성영, 홍예빈 사회복지사



# 평창분관 자원활동 어벤저스

10년 이상 평창분관과 관계를 맺고 후원과 자원활동으로 함께하며 언제나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는 그루터기 같은 분들, 자원활동 어벤저스를 소개합니다~!



## Q. 복지관과 관계를 맺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고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 오셨나요??

### 1호 고경주

15년 정도 전이었나요? 복지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을 하게 되면서 복지관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활동지원사로 5, 6년 정도 일을 하고서는 한동안 활동을 못하다가 자원봉사활동으로 다시 활동한지 5년 정도 됐습니다. 장애인인권캠페인, 해남평생대학 홈페이지와 조리학과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했습니다.

### 2호 강종희

2015년 즈음? 아동 멘토링 사업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홈페이지와 킷, 목공예, 조리학과, 작품전시, 명절 음식 나누기 ... 이것저것 많이 했네요. ^^

### 3호 김현미

봉사 활동은 많이 못했구요, 이미정 분관장님 입사 때부터 약 20년 후원으로 함께 했고, 지난해 홈페이지 킷 봉사 를 했습니다.

### 4호 함명호

1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홈페이지 킷, 난타 공연, MT, 영화관람, 작품전시 에 함께 했습니다.

## Q. 복지관과 관계를 맺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고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 오셨나요??

### 1호 고경주

복지관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내내 너무 재밌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일거리 삼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관심도 가고 더 잘하고 싶어서 공부해서 심리치료 자격증도 취득했고, 영양보호사 자격증도 뒀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르신들 보다는 장애인분들하고 활동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형식적인 친절로 이용자분들을 대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정말 재밌고, 친밀감이 생겼고, 성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원래 조금 급하고, 욕하는 성격이 있었는데 기다려주는 것을 몸에 익히면서 성격이 많이 유해지고 차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시설 차리려고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

### 2호 강종희

처음 아동 멘토링에 참여하면서 아동에게 더 좋은,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공부했습니다. 사회복지사, 미술치료 자격증 취득했고, 킷 자격증도 따서 홈페이지 킷 강사로도 활동했습니다.

### 3호 김현미

왠지 장애인들에게 다가가기 힘들다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저를 알아봐 주시는 장애인분들이 길 가다가도 먼저 알아보고 인사해주는 모습을 보고 내 생각보다 훨씬 밝고 긍정적인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에 대해 막연히 불쌍하고 다가가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평창분관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친밀해지고, 이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나보다 조금 불편할 뿐 나와 같은 사람이고 오히려 더 잘하는 것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4호 함명호

저는 지적, 언어 장애가 있는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은 시설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곳에서 활동하면서 내 동생도 집에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Q. 우리 복지관에 칭찬이나 조언을 해주신다면?

### 1호 고경주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가 생긴 것이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규모가 커져서 성인이 되면 갈 곳이 없는 발달장애인들이 보다 의미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꾸준히 잘해오고 계시기에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는 만큼 대우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 2호 강종희

지난 송년가족잔치 때 1년간의 활동이 담긴 동영상을 보면서 문득 봄부터 겨울까지 장애인분들이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셨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이 노력해주는 덕분에 이분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 3호 김현미

바깥 활동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활동의 장을 열어주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4호 함명호

예전에는 해남평생대학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조금 인원이 줄어든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 분들이 복지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더 다양하고 즐거운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면 잘된 일이구요. ^^



잠시 시간을 내어 네 분이 평창분관과 인연을 이어오신 이야기들을 들어보며, 유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평창분관을 지켜주실 자원활동 어벤저스의 꾸준한 활약을 기대합니다~!

글/사진 평창분관 이재길 사회복지사

# 동행, 스승과 제자로 만난 특별한 관계

강원특별자치도의 작은 복지관. 이곳에서 두 사람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함께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나이도, 경험도, 환경도 전혀 다른 이들은 어떻게 스승과 제자가 되었을까요? 이들의 특별한 이야기는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우리들의 첫 만남: 사진반에서

속초분관에서 운영하던 해냄평생대학 사진반에 등록된 이창복님은 사진에 대한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다루는 법부터 구도를 잡고 빛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이창복님은 수업 시간 내내 열심히 질문하곤 했어요. 배우려는 열정이 정말 대단했죠.” 그의 곁에서 조용히 도움을 주던 활동지원사 장월선 선생님. 사진은 잘 몰랐지만 이창복님의 의욕에 이끌려 함께 참여했습니다.

## 역할이 바뀌다.

그러던 어느 날, 장월선 선생님은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창복님이 자신이 배운 사진 기술을 선생님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한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창복님은 렌즈 초점 맞추는 법, 빛을 활용해 이야기를 담는 법까지 꼼꼼히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된 거죠. 선생님께 가르쳐드리니, 뭔가 더 열심히 하고 싶더라고요.” 이창복님의 말처럼,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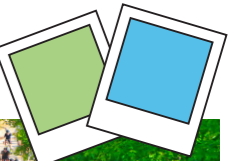
## 함께 떠나는 계절의 여행

이제 두 사람은 사진 촬영을 위해 계절마다 출사를 떠납니다. 봄이면 피어나는 꽃밭에서, 여름이면 푸른 강가에서, 가을이면 단풍길에서, 겨울이면 새하얀 눈밭에서. 같은 풍경을 각자의 시선으로 담아내며 사진을 찍습니다.

“같은 곳을 찍어도 이창복님의 사진은 저랑 완전히 달라요. 그런 차이를 보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선생님과 함께하니깐 더 용기가 생겨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도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찍은 사진은 사진전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의 작품이 나란히 전시된 모습은 관객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 배움과 나눔의 의미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이창복님이 보여준 열정이 제 삶에 큰 자극이 됐죠.”

장월선 선생님의 말처럼, 두 사람은 단순히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동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또 다른 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출사에서는 어떤 풍경을 마주할까요? 이창복님과 장월선 선생님은 사진 속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도 배움과 나눔이 있기에, 이들의 동행은 오늘도 따뜻한 빛을 내고 있습니다.

글/사진 자료제공 속초분관 최진희 사회복지사



사진 : 이창복

## 장애인 당사자 주도 꿈 지원사업 ‘징검다리, 사람중심실천과 개인예산제를 말한다.’

11월 20일 수요일 강원콘텐츠코리아랩의 아이디어 카페에서 2024 장애인복지실천 이야기마당이 진행되었습니다. “징검다리, 사람중심과 개인예산제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장애인 당사자 주도 꿈 지원사업인 징검다리 사업에 대한 토크콘서트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정책)이 예견될 때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인식을 확산하고 시범 사업을 통해 시행과정을 연습해 보는 것은 무척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가 느껴졌습니다. 역시 강원도장복입니다. 최고!”

이야기마당 참가 실무자

토크콘서트 1부에서는, 징검다리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한 복지관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징검다리 사업을 소개하였습니다. 우리복지관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동안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진행해왔는지, 그리고 사업양식 뿐만 아니라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공 경험 등 모든 노하우를 현장에 참석한 도 내 장애인복지관 관련 기관, 단체의 실무자들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토크콘서트 2부에서는, 징검다리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꿈을 찾아 실천해가고 있는 꿈 주인공 당사자, 이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꿈지원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 발표1. 사업추진 배경 이야기(사람중심실천, 개인예산제) / 채재관 사무국장
- 발표2. 사업진행 과정 이야기 / CBS사업지원팀 장성영 과장
- 발표3. 나의 꿈 이야기, 시작 / 양구 지역 박제양·정우열님
- 발표4. 나의 꿈 이야기, 꿈에 더 가까이, 1년 후 / 춘천 지역 이상운님



이야기마당에 참여했던 도내 장애인복지관 기관, 단체의 실무자들은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양한 최신의 실천기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 등 지방 환경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의 협업”(52.6%), “종사자 교육 기회 확대”(26.3%),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보급”(21.1%)이 필요하다 라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2023년, 집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던 나는 ‘당사자 주도 꿈 지원사업 <징검다리>’ 사업을 소개받았습니다. ‘나에게도 꿈이 있었나’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한 번 해보자 하고 복지관에 신청서를 내보았습니다.

PATH라는 것을 통하여 내 꿈을 찾는 과정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미술전에 작품을 출품해 보기’와 ‘가고 싶었던 곳으로 떠나 오랜 시간 외출해 보기’라는 내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찾았지만, 과연 내가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휠체어가 없이 조금도 이동할 수 없고, 긴 외출도 힘들었으니까. 무언가를 배우러 다닌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 방문 미술 교육 선생님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스케치부터 차근차근 그림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그린 그림으로 내 방 벽을 채우니 방구석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선생님들도, 우리 자식들도 나의 작품을 보며 점점 실력이 늘고 있다며 칭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나 뿌듯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미술 학원에서 개최한 전시회에도 참가했습니다. 또 유명한 카페 앞마당에서 진행된 전시회에 내 그림을 보겠다고 100일 갓 지난 쌍둥이 손주들까지 다녀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고, 용기를 낼 수 있으면 도전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미술 공부, 전시회에 참가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변해가는 스스로가 뿌듯합니다.

징검다리 사업 참여자 이상운님

\*PATH: Planning Alternative Tomorrow with Hope, 희망으로 여는 새로운 미래 계획을 뜻합니다.





# 변화를 위한 함께 걸음

2024년 한 해동안 우리복지관에서는 사업영역별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바쁜 저마다의 일상 속에서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 #1. 선한 영향력, 긍정행동지원 실천가 네트워크

긍정행동지원 도전행동 장애인 지원을 위한 긍정행동지원 실천가 교육이 3.6부터 4.24까지 7회기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 이후에는 긍정행동지원 실천에 관심이 있는 도내 실무자들의 모임으로 이어져, 5개 기관의 실무자들이 바쁜 일상의 업무 속에서도 어렵게 자신들의 실천 경험과 배움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7월부터 4번의 모임을 가지면서, 일하고 있는 기관 내 도전행동 사례를 공유하고 긍정행동지원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도전행동에 적합한 지원이 무엇인지 폭넓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으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당사자를 시간별로 구분하여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사자가 ‘으으’로 다양한 의사를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당사자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고 당사자도 도전행동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긍정행동지원 실천가 네트워크 모임 참석자)



우리복지관은 도전행동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최종중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기적인 긍정행동지원 실천가 네트워크 모임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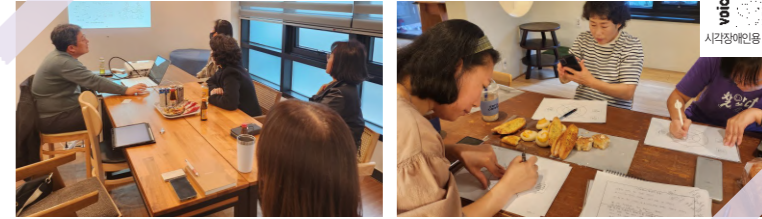
## #2. 양구군 사회복지(장애인) 유관기관 실무자 네트워크 ‘이음’

우리복지관 양구군지역사회중심지원센터에서는 양구군의 사회복지 현안 및 관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 내 유관기관 실무자 네트워크 ‘이음’을 진행했습니다. 분기에 한번, 네 번의 모임을 통해 양구군 내 장애인복지 유관기관 실무자가 한자리에 모여 사회복지 현장에 최근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예산제, 장애인복지법(제15조) 개정(폐지), 장애인 이동지원, 장애 인식개선 등에 대해 논의도 하고, 자문위원과 함께 역량 강화를 위한 배움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사업 등 여러 사업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교육 이후에는 양구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연계하여 진행하고 싶은 의욕이 생겼습니다. 네트워크 모임을 통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너무 유익했습니다.”  
(양구군청 이아름 주무관)

내년에도 변함없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이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용 보이스아이 심물입니다.

## #3. PCT 실천모임 (보호자 자조모임)

장애자녀를 둔 보호자들이 자녀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6.10부터 6.28까지 6회기에 걸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람중심생각(PCT) 기본과정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기본과정 교육 수료 이후, 4명의 보호자님이 PCT실천모임(자조모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 모임을 통해 배웠던 내용을 실천하고, 내 자녀에게 중요한 것, 자녀를 위해 중요한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4번째 모임에서는 사람중심실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GSC 나에안식 지원주택(잠실)로 기관견학도 다녀왔습니다.

PCT 실천모임에 참여하고 계신 김미연님께 실천 모임 참여가 가지는 의미를 들어보았습니다.

### PCT 부모교육 이후 실천모임까지 참여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 첫 번째로는 배웠던 내용을 자꾸 잊어버려서 반복하게 되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두 번째로는 나중에 아이가 개인예산제를 하게 될 때 개인예산제 준비에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 실천모임에 참여하고 나서, 가장 좋았던 점이 있다면?

- 교육 때는 제 것이나 짝꿍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 한정적인 느낌이었는데 실천모임에서는 다양한 어머님들 사례를 근접해서 듣고 내가 알지 못했던 면을 알게 되면서 상호보완이 되는 면이 좋았어요. 특히 다른 어머님들과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생각, 말들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다가오는 면이 좋았어요.

### 실천모임을 통해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실천)해보셨나요?

- 평상시에 몰랐던 것을 메모를 해 놔다가 아이에게 시도 해 보았어요. 우리 아이가 순간적인 충동 조절이 매우 어려운데 배운 걸 적용 하면서 뭔가 걸음으로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엄마 입장에서 보면 돌발횟수도 줄어 들고 화가 났을 때 아이 스스로 조절하려고 하는 게 느껴지면서 많이 완화됨을 느끼고 있어요. 계속 아이에 대해 기록 하다보니 기록이 누계가 생기게 되어 이번에 새로운 학교에 입학할 때 학교 선생님께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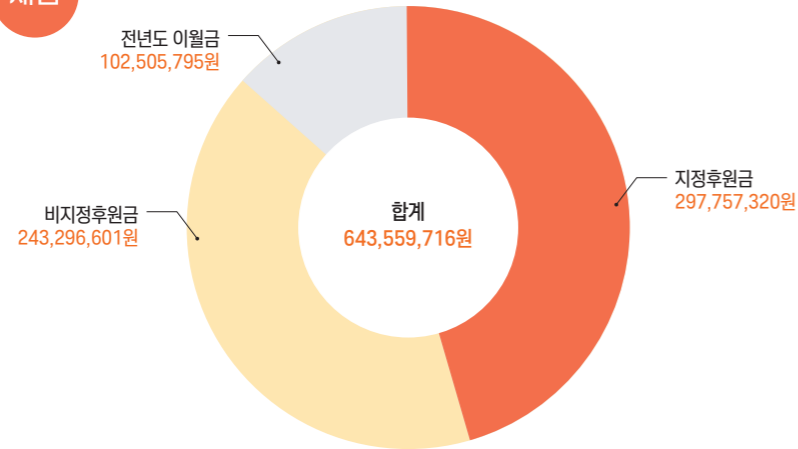
### 만약 내년에도 실천모임이 꼭 이어진다면, 실천모임에 기대하는 바는?

- 지금처럼 소그룹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소그룹으로 진행하게 되면 좀더 자유롭게 구체적인 사례도 많이 나눌수 있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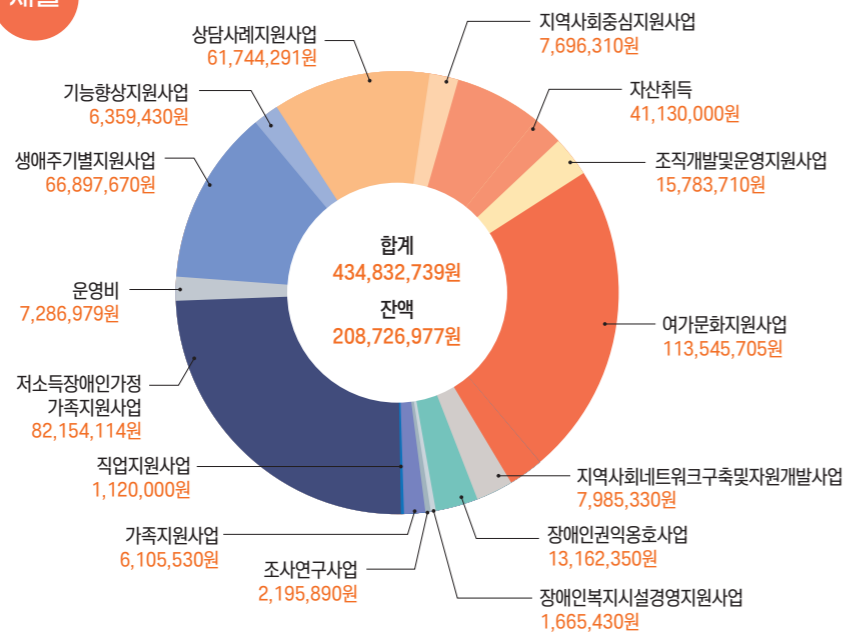
(김미연/ 생애주기 프로그램 참여자 허진욱 보호자)

## 2024년 후원금 결산

### 세입



### 세출



## 2024년 함께 해주신 후원자&자원활동가

### 2024년 우리복지관과 새롭게 인연을 맺고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고석기 고선명 공석근 구자경 권성녀 권호신 김강민 김경식 김국진 김문정 김민서 김보균 김 솔 김수빈 김연기 김영현 김은성 김정희 김지애 김현중 김희영 나상영 남궁원 노경완 동은희 민금숙 민찬아 민찬혜 박규천 박상건 박신영 박안수 박안수 방인혁 배문수 변희성 양승권 어순복 연승재 오승현 우원재 원혜영 이기숙 이기태 이미경 이미자 이 숙 이연주 이유진 이은정 이인옥 이정근 이하나 이한중 장남수 전미영 정미란 정순식 정의선 정한울 조글샘 조미성 주다민 지수옥 지영현 지준식 천예솔 최연준 최운주 최정복 하윤정 홍명화 홍수찬 성민조경 김에스더 세븐일레븐평창하리점(나광민) 최가네(최창영) 최명희(다정한밥상) 효송기업(이영철)

### 2024년 한해 동안 우리복지관 곳곳에 도움의 손길을 나누어주신 자원활동가입니다.

구민주 권호신 김경숙 김규석 김보순 김보현 김영숙 김우빈 김은희 김주리 김주애 김진천 김하주 김한빈 나정훈 민병도 민유희 박규천 박조남 박창섭 박호숙 변민정 서상준 양정미 엄태집 오민주 우명화 윤해인 이상진 이서현 이영태 이용운 이장군 이진형 이희봉 장정심 정완석 정유진 조윤서 진미경 진장철 진찬영 채성숙 한만수 함승수 홍자영 강원신용보증재단 금강라이온스클럽 강원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 맥가이버봉사단 보리수봉사단 새벽을여는사람들 재춘고대향우회 재춘양구군민회 제일라이온스클럽 춘천도시공사 춘천사랑시니어아카데미 춘천한마음로타리클럽 파란나라봉사단 현대자동차 호반라이온스클럽 장애인을생각하는강원특별자치도청공무원들의모임

2024년 한 해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내 장애인과 함께 해주신 모든 후원자, 자원활동가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사각장애인용 보이스아이 상품입니다.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복지관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유튜브  
바로가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우로 27

T 033)255-2491 F 033)255-2494 www.rehab.or.kr